

조선시대에 간행된 漢文本 大學의 諸版本에 관한 研究

A Study on Every Printed Books of Hanmunbon Great Learn (大學) in Chosun Dynasty

宋 日 基(II-Gie Song)*

安 賢 珠(Hyeonju Ahn)**

< 목 차 >

- | | |
|----------------------|--------------------|
| I. 緒 言 | 2. 刊行時期別 分析 |
| II. 漢文本 大學 諸版本의 調査 | IV. 漢文本 大學 諸版本의 系統 |
| 1. 冊版目錄상의 大學板本 | 1. 木板本 系統 |
| 2. 現존본 韓文本 大學의 판本現황 | 2. 活字本 系統 |
| III. 漢文本 大學 諸版本의 分析 | V. 結 言 |
| 1. 刊行地域別 分析 |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四書』의 하나인 한문본 大學 제판본에 관한 형태서지적 분석이다. 국내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문본 大學 판본을 조사하여, 그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문본 大學 판본 중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大學章句大全』의 계통별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한문본 大學은 한성지역의 중앙관서와 경상감영에서 주로 간행하였고, 시기적으로는 17~19세기에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大學章句大全』의 경우 명나라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복각한 '명본복각계열'과 조선에서 주조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계열'로 판본의 계통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주제어: 大學, 大學章句大全, 四書

ABSTRACT

This paper is a morphologic-bibliographic analysis on every printed books of Hanmunbon Great Learn(大學), one of 「FourBooks(四書)」 in Chosun Dynasty. Through examination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ooks in many institutes and private collections, 「Daehakjanggudaejun(大學章句大全)」 was systematically explored, which was the most frequently published Great Learn (大學) in Chosun Dynasty. The Hanmunbon Great Learn (大學) was published mainly in Central Publishing Office in Hansung Area and Kyungsang provinces, and in the period of 17C to 19C. There are two streams of 「Daehakjanggudaejun」. One is the reprinted edition of Myungbon(明本覆刻), originated from 「Saseookyungdaejun(四書五經大全)」, compiled by Hokwang(胡廣) and colleagues in Myung(明). The second is movable type books of Chosun(朝鮮活字本), the contents of which being the same as the other stream.

Key Words: Great Learn (大學), Daehakjanggudaejun(大學章句大全), FourBooks(四書)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treenbird@hanmail.net) (공동저자)

• 접수일: 2005년 5월 14일 • 최초심사일: 2005년 5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5월 30일

I. 緒言

조선은 유교, 즉 주희(朱熹) 성리학의 근본원리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나라이다. 그리하여 조선 조에는 유학을 교육 및 관료등용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교와 관련된 많은 경적(經籍)이 간행 유통되었다. 특히 『사서(四書)』는 성리학의 기본 경전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석 및 도해(圖解)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활자본과 목판본의 형태로 중앙관서는 물론 지방의 감영(監營), 서원,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민간출판업자에 의해서까지 끊임없이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필자는 『논어(論語)』의 제판본에 관한 연구¹⁾에 이어 조선시대에 통치수단으로 널리 보급된 大學의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비록 大學 판본의 전래와 유포 등에 관한 단편적인 사실들이 연구되긴 했지만, 판본 자체에 관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간행 유통된 大學 판본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은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문본 大學 판본만을 대상으로 각종의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문헌기록을 조사하고,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존본 실물들을 조사하여 <大學書目>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大學 판본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것들로, 그 구체적인 시기는 세종(世宗) 때에 명나라에서 수입되어 처음으로 『大學章句大全』이 간행된 1424년부터 1910년대까지이다. 물론 문헌 기록상으로는 세종 이전의 大學 판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³⁾ 그리고 판종(板種)별로는 필사본을 제외한 활자본과 목판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활자본의 범위는 조선시대에 주조한 활자로 찍은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선후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인쇄기로 찍은 신식활자본(新

1)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2) 송정숙, 朝鮮朝에 있어서 『四書』의 수용과 전개—『大學』과 『中庸』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4).

정형우,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行 廣布,” 東方學志, 제63집(1989), pp.1-27.

우정임, “朝鮮初期 書籍輸入·刊行과 그 性格—性理學書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제24집(2000, 6), pp.39-69.

3) 세종 때 간행한 판본 이전에 관한 기록은 『高麗史』와 『世宗實錄』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록들은 대략 4건 정도로 파악된다.

첫째, 고려 후기의 문신인 권부(權溥)의 건의로 주희의 『사서집주』가 간행되어 널리 전파되었다는 기록(『高麗史』 卷107, 列傳 第20, 權溥).

둘째, 세종 3년에 함길도 관찰사의 요청으로 『四書五經』의 인본(印本)들을 반사(頒賜)케 했다는 기록(『世宗實錄』 卷13, 世宗3年9月 己卯條).

셋째, 세종 5년에 각도(各道)에서 인출한 『사서오경』 각 10부를 중앙의 성균관 및 오부학당(五部學堂)에 나누어 소장케 했다는 기록(『世宗實錄』 卷19, 世宗5年3月 丙申條).

넷째, 세종 7년에 경상도감사 하연(河演)이 올린 『易』·『詩』·『春秋』·『中庸』·『大學』·『論語』 등을 성균관, 교서관, 사부학당(四部學堂)에 나누어서 내렸다는 기록(『世宗實錄』 卷30, 世宗7年11月 丁酉條).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보아 이미 고려 말에 『대학』 판본이 국내에 수입되어 간행유포되었다는 사실과 세종 때 세 차례에 걸친 『사서오경대전』의 수입 이전에 이미 각도에 소장되어 있던 판본들로 인출한 『대학』 및 기타 유교 경전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판본들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式活字本)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大學의 전문(全文)을 담고 있으면서, 주로 교재용으로 유통된 판본만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한문본 大學은 다른 경전들에 비해 비교적 분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단권으로 간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낙질(落帙)이 존재할 수 없어 비교적 정확한 간행연도 추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각 판본들을 서로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간기(刊記)나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판본의 간행연도를 밝히게 되면, 이를 근거로 간기가 확실치 않은 다른 유교경전 판본들의 간년추정 및 판본들간의 선후관계를 살피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물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대학서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되어 현존하는 한문본 大學 판본의 전체적인 현황과 간행시기 및 간행지역을 파악하고, 계통별 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漢文本 大學 諸板本の 調査

1. 册版目錄상의 大學 版本

가. 大學册版의 수록현황

책판목록의 기록에 의하면 한문본 大學은 총 25개 지역에서 모두 4종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에도 많은 지역에서 상당수의 大學 책판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현존하는 한문본 大學들을 조사해 본 결과 임진왜란 이전의 자료는 책판목록상의 기록만큼 많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전란(戰亂) 중에 상당수의 책판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책판목록상의 기록으로는 전라지역이 가장 많은 곳에서 大學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조사한 결과 실물은 경기지역과 경상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전라지역에서 간행된 실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현존하는 각 책판목록들에 수록되어 있는 大學 책판을 개관한 지역별로 정리하여 작성해보면 <표 1>과 같다.

나. 大學의 開板地別 刊行現況

(1) 경기지역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4 곳에서 3 종의 大學 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관서에서 大學 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곳은 교서관이다. 교서관은 국가적인 출판 전담 부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大學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특성은 『논어』의 판본연구에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2호)

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며, 『논어』뿐 아니라 『중용』과 『맹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⁴⁾

〈표 1〉 冊版目錄에 나타난 大學의 수록현황

冊板		攷事撮要	攷事撮要	攷事撮要	古書冊板有處考	慶尙道冊板	攷事撮要	三南冊板	諸道冊板錄	完營冊板	各道冊板	古冊板有處考	鏤板考	各道冊板
地域		1576	1585	1674	1700	1730	1734	1743	1750	1759	1778	1780	1814	1840
京畿地域	中央官署	大學	大學											
	南漢												章句	大學
	北漢												大全	大全
全羅地域	廣州										大學			
	光州	大學	大學											
	羅州										大學			
	順天		大學											
	龍潭										大學			
	全州		大學							大學		大學		大全
	井邑	大文	大文											
慶尙地域	濟州			大學			大學					大學	大全	
	慶尙監營					大學					大全		大全	
	慶州	大學	大學		大學							大學	章句	
	善山	大學	大學		大學							大學		
	星州	大學	大學		大學							大學		
北韓地域	安東					大學								
	遂安	大學	大學											
	寧邊										大全		大全	
	平壤	大學	大學											
	咸鏡監營								大學	大學			大全	
	海州	大學	大學 大文											
其他地域	會寧	大學	大學											
	原州	大學	大學											
	林川	大文	大文											
	忠州	大學	大學											

(축약서명 임. 예: 大全 → 『大學大全』, 大文 → 『大學大文』, 章句 → 『大學章句』)

4) 안현주. 상계서, p.20.

한편 경기도에서는 남한[남한산성]의 개원사(開元寺)와 북한[북한산성]의 태고사(太古寺) 2 곳에서 大學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 각기 '병신삼월북한성개간'(丙申三月北漢城開刊)과 '임술초추북한중간'(壬戌初秋北漢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中庸章句大全』이 실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록 현존하는 大學 판본의 실물은 없지만 같은 시기에 이곳에서 大學 판본도 간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 이와 같이 경기지역의 경우 임진왜란 이전에는 『대학』 1종만이 소장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학』, 『대학장구』, 『대학대전』 등 한문본 3종이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전라지역

전라지역에서는 7개 지역에서 3종의 大學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4곳, 임진왜란 이후에 4곳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많은 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됐다는 기록이 있는 실물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물론 세종 8년(1426)에 명나라에서 수입한 『四書五經大全』을 저본으로 『四書大全』은 강원도에서 개판(開板)하게 했고 전라도에서는 『五經大全』 가운데 『詩傳』, 『春秋』를 개판하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전라도 지역에서 『대학』 판본이 간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⁶⁾ 임진왜란 이후에 성균관에서 전화(戰禍)로 소실된 서적을 보충하려고 할 때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에서 각기 간행한 사서를 두세 질 씩 올려달라고 요청한 실록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선조 37년(1604년) 이전에 전라도에서는 大學을 개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3) 경상지역

경상지역에서는 5개 지역에서 3종의 大學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경상감영에서 『대학』과 『대학대전』을 한 종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실물들을 조사해 본 결과 간기가 있는 大學은 4종으로 확인되었다.⁸⁾ 경상지역의 경우 임진왜란 이전에는 『대학』 1종만이 소장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학』, 『대학대전』, 『대학장구』 등 3종이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지역

북한지역에서는 6개 지역에서 3종의 大學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간행된 大

5) 현존본 『중용장구대전』은 원광대(148.2×816스)와 규장각(규683)에 소장되어 있음.

6) 『世宗實錄』, 卷39, 世宗9年10月 壬午條.

7) 『宣祖實錄』, 卷182, 宣祖37年12月 丁未條.

8)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한문본 『대학장구대전』 판본 중 현재 실물로 남아 있는 판본들의 간기는 다음과 같다. ①戊子新刊嶺營藏板 ②乙丑四月嶺營重刊 ③庚辰七月嶺營重刊 ④戊午五月嶺營重刊.

學 판본 가운데 현존하는 실물은 ‘을축사월영변부개간’(乙丑四月寧邊府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대학장구대전』인데, 이 판본은 1745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책판목록의 기록에 따르면 영변지역에서 大學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는 기록은 1778년에 작성된 『각도책판목록』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는 최소한 1778년 이전에 영변지역에 大學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 책판을 사용하여 大學 판본을 인출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의해 1778년 이전의 간지(干支) 중 가장 가까운 을축을 찾아보니 1745년 이었는데, 비록 『각도책판목록』에 나타난 『대학』 책판의 서명은 『대학대전』이었지만 실제로 이 기록이 가리키고 있는 실물은 ‘을축사월영변부개간’이라는 간기를 가진 『대학장구대전』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경우 임진왜란 이전에는 『대학』, 『대학대문』 2종이 소장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학』, 『대학대전』 등 2종이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지역

앞서 언급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大學 책판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원주지역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에 大學 책판을 1종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세종 연간에 명나라에서 수입한 영락판 『사서오경대전』 가운데 하나인 『대학장구대전』을 강원도에서 복각한 『대학장구대전』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영락판 『사서오경대전』 가운데 『사서대전』을 간판하였으며, 이후에 주자소로 그 판이 이관되기 전까지 강원도 지역에서 누각을 짓고 보관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때 만들어진 판들 중 일부가 원주지역에서도 소장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⁹⁾ 한편 충청지역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에 임천과 충주 두 곳에서 개판된 『대학대문』과 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현존본 漢文本 大學의 판본 현황

한문본 大學은 서명별로 『大學』, 『大學章句大全』, 『大學奎壁』, 『大學大文』, 『庸學大文』, 『庸學正文』, 『三經四書正文』 등 7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동일 서명 하에서도 판본이 다른 것들을 구분하면 총 종수(種數)는 38종에 이르고 있다. 이들 판본을 판종별, 간행사항별, 판식의 특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구분된다

9) 『사서오경대전』 가운데 『오경대전』을 간판했던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판자(板子)를 주자소에 이관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강원도의 『사서대전』을 주자소로 이관했다는 기록은 실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 11년(1429) 2월과 3월에 각각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오경대전』 판자들을 주자소로 이관해왔고, 또 세종 17년(1435) 10월에 이미 『性理大全』 및 『사서오경대전』을 주자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아마 『오경대전』과 비슷한 시기에 혹은 늦어도 1435년 이전에는 주자소로 이관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世宗實錄』, 卷43, 世宗11年2月 己亥條, 3月 壬子條와 『世宗實錄』, 卷70, 世宗17年10月 癸亥條.

〈丑 2〉 漢文本 大學 諸板本の 調査現況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板式의 特徵				
				邊欄	半廓(cm)	行字數	魚尾	
大學	再鑄整理字	校書館	[19C末]	單邊	20.4×13.7	9行17字	上黑	
	木板本	校書館	1758序	雙邊	24.3×17.2	6行17字	上2葉花紋	
大學章句大全	木板[篆刻]	未詳	1663序	雙邊	28×18.6	5行5字	上下2葉花紋	
	戊申字	校書館	1695賜	雙邊	24.7×17.3	10行17字	上下2葉花紋	
	戊申字	校書館	1758序	單邊	25×17.2	10行17字	上下2葉花紋	
	丁酉字	校書館	1793	單邊	24.8×17	10行18字	上2葉花紋	
	丁酉字覆刻	內閣	1820	單邊	24.3×17.2	10行18字	上2葉花紋	
	丁酉字覆刻	匯東書局	1918	單邊	24.2×17	10行18字	上2葉花紋	
	丁酉字覆刻	慶尙監營	1828	單邊	23.2×17	10行18字	上2葉花紋	
	丁酉字覆刻	未詳	[19C末]	雙邊	23.4×19.4	10行18字	上下2葉花紋	
	後期芸閣 印書體字	校書館	[17C末 -18C初]	左右雙 邊	20.3×13	10行20字	上下2葉花紋	
	訓鍊都監字	訓鍊都監	[17C初]	雙邊	26.5×17	10行22字	上下3葉花紋	
	明本覆刻	[鑄字所]	[15C中]	雙邊	25.7×16.8	10行22字	黑口,上下黑	
	明本覆刻	未詳	[17C末]	單邊	23.4×18.6	10行22字	黑口,上下黑	
	明本覆刻	未詳	[16C初]	雙邊	23.5×16.3	10行22字	黑口,上下黑	
	明本覆刻	[咸興府]	[1612]	雙邊	24.2×16.4	10行22字	黑口,上下黑	
	明本再覆刻	成均館	[1686]	雙邊	22.6×18.5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明本再覆刻	慶尙監營	[1745]	雙邊	22.8×18.3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明本再覆刻	慶尙監營	[1760]	雙邊	22×18.3	10行22字	上下3葉花紋	
	明本再覆刻	慶尙監營	[1798]	雙邊	23×18.8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明本再覆刻	未詳	[18C末]	雙邊	21×16.9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明本再覆刻	河慶龍	1810	雙邊	23×18.1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明本再覆刻	七書房	1916	雙邊	23.2×18.2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明本再覆刻	慶尙監營	[1841]	雙邊	23.1×18.1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明本再覆刻	[咸鏡監營]	[1726]	雙邊	27.4×18.4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明本再覆刻	寧邊府	[1745]	雙邊	25.7×18.1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明本再覆刻	成均館	[1789]	雙邊	24.8×18.6	10行22字	上下2葉花紋	
	木板本	[武橋]	[1874]	單邊	16.5×13.5	10行22字	上2葉花紋	
	木板本	在田堂書鋪	1913	單邊	20×16.5	11行18字	上下2葉花紋	
	木板本	未詳	[19C中]	單邊	19.7×13.7	11行21字	上下2葉花紋	
	木板本	新舊書林	1913	單邊	22.8×17.3	13行28字	上黑	
	大學奎壁	木板本	未詳	[1868]	單邊	12.4×10.2	10行22字	無魚尾
	大學大文	丁酉字	校書館	[正祖年間]	雙邊	24.5×17.5	10行17字	上3葉花紋
	庸學大文(大學)	戊申字	校書館	[1695년경]	雙邊	25.2×17.2	10行18字	上下2葉花紋
庸學正文(大學)	木板本	未詳	[1812]	單邊	18.4×14.7	10行20字	上下2葉花紋	
三經四書 正文(大學)	壬辰字	芸香閣	1775	單邊	25.1×17.1	10行18字	上2葉花紋	
	壬辰字覆刻	內閣	1820	單邊	24.9×17.2	10行18字	上2葉花紋	
	芸閣印書體字	校書館	[18C初]	雙邊	21.3×13.7	10行20字	上白魚尾	

Ⅲ. 漢文本 大學 諸版本의 分析

1. 刊行地域別 分析

현존하는 한문본 大學 판본의 간행지역을 경기지역, 경상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경기지역과 경상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하게 大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가. 경기지역

조선시대에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한문본 大學은 모두 19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大學 판본이 이 지역에서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서명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경기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大學의 諸版本

書名	刊行處	刊行年	行字數	板種
大學	校書館	19C말	9행17자	再鑄整理字本
	校書館	영조연간	6행17자	木板本
大學章句大全	校書館	1695년경	10행17자	戊申字本
	校書館	17C말	10행17자	戊申字本
	校書館	1793년	10행18자	丁酉字本
	內閣	1820년	10행18자	丁酉字覆刻本
	匯東書局	1918년	10행18자	內閣 後印本
	校書館	17C말/18C초	10행20자	後期芸閣印書體字本
	訓練都監	17C초	10행22자	訓練都監字本
	[鑄字所]	15C중엽	10행22자	明本覆刻本
	成均館	[1686년]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成均館	[1789년]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武橋	[1874년]	10행22자	木板本
	新舊書林	1913년	13행28자	木板本
大學大文	校書館	正祖年間	10행17자	丁酉字本
庸學大文	校書館	1695년경	10행18자	戊申字本
三經四書正文	芸香閣	1775년	10행18자	壬辰字本
	內閣	1820년	10행18자	壬辰字覆刻本
	校書館	18C초	10행20자	後期芸閣印書體字本

위의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한문본 大學 판본의 대부분은 중앙관서인 교서관, 운향각, 내각, 주자소, 성균관, 훈련도감, 규장각 등에서 간행되었다. 또한 이들 중앙관서들 가운데 주자소, 교서관, 운향각, 내각 등은 시대에 따라 명칭만 다를 뿐 모두 출판업무에 관련된

동일 부서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 관서들과 도서관에서 간행된 판본들을 포함하면 한성지역에서 간행된 大學 판본의 대부분은 출판을 담당하던 중앙관서에서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구서림, 회동서국 등의 민간의 서점들과 무교 등에서 인출한 판본들이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판본들에 포함된다.

나. 경상지역

경상지역에서는 『대학장구대전』 6종의 한문본 판본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경상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大學 板-版本

書名	刊行處	刊行年	行字數	板種
大學 章 句 大 全	慶尙監營	1828년	10행18자	丁酉字覆刻本
	慶尙監營	[1745년]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慶尙監營	[1760년]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慶尙監營	[1798년]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慶尙監營	[1841년]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在田堂書鋪	1913	11행18자	木板本

경상지역에서 간행된 大學 판본은 주로 경상감영에서 간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5종이 감영에서 간행되었고, 시기적으로는 주로 18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어느 지방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간행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간행된 판본 6종이 모두 『대학장구대전』인 것을 보면, 그 당시 성리학의 교재로서, 그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

다. 기타지역

전라지역에서는 『대학장구대전』 2종이 간행되었으며, 북한지역에서는 『대학장구대전』 3종이 간행되었다. 북한지역에서 간행된 『대학장구대전』 가운데 2종(<표 2>에서 각기 [咸興府], [咸鏡監營]으로 추정해 놓은 판본)은 판본에 직접적으로 간행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판본이지만, 『대학장구대전』에 이들과 판식이나 글자가 비슷한 판본이 있는 것을 근거로 비록 간행사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시기에 간행한 판본으로 추정하였다. 이 외에 간행사항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판본들로는 『대학장구대전』이 6종, 『大學奎璧』, 『庸學正文』 등의 판본이 있다.

이상으로 간행지역별로 한문본 大學 판본을 살펴보았는데, 경기지역과 경상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하게 大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다. 한성지역에서 간행된 大學 판본의 대부분은 출판

을 담당하던 중앙관서에서 인출되었고, 경상지역에서 간행된 大學 판본은 주로 경상감영에서 간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2. 刊行時期別 分析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大學 판본을 그 간행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기는 크게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 등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임진왜란 이후의 판본들은 다시 17세기, 18세기, 19세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가. 임진왜란 이전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한문본 大學은 3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모두 세종연간에 수입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대학장구대전』을 복각한 것이다. 이들은 간행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漢文本 大學의 諸版本

刊行年	書名	刊行處	行字數	板種
[15C中]	大學章句大全	[鑄字所]	10행22자	明本覆刻本
[16C초]	大學章句大全	미상	10행22자	明本覆刻本
[17C末]	大學章句大全	미상	10행22자	明本覆刻本

나. 임진왜란 이후

(1) 17세기 판본

17세기에 간행된 한문본 大學은 모두 6종으로, 이는 『대학장구대전』 5종, 『庸學大文』 1종이 현존하고 있다. 이를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17세기에 간행된 漢文本 大學의 諸版本

刊行年	書名	刊行處	行字數	板種
17C초반	大學章句大全	訓練都監	10행22자	訓練都監字本
[1612년]	大學章句大全	[咸興府]	10행22자	明本覆刻本
1663년경	大學章句大全	未詳	5행5자	木板本(篆刻)
[1686년]	大學章句大全	成均館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1695년경	大學章句大全	校書館	10행17자	戊申字本
[1695년경]	庸學大文	校書館	10행18자	戊申字本

위의 <표 6>은 17세기에 간행된 大學을 크게 서명별로 정리하고 또 동일 서명 내에서는 다시 간행연도순으로 분석 배열하였는데, 17세기에 간행된 판본들은 주로 숙종 연간, 광해군 연간, 그리고 선조 연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18세기 판본

18세기에 간행된 한문본 大學은 모두 14종으로, 서명별로는 『대학장구대전』 10종, 『三經四書正文』 2종, 『大學』, 『大學大文』 각 1종 등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8세기는 조선왕조에서 영조·정조가 재위하던 시절로 세종 이후로 제2의 문예부흥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학』 판본들 역시 다수가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크게 서명별로 구분하고 동일 서명 내에서는 다시 간행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18세기에 간행된 漢文本 大學의 諸版本

刊行年	書名	刊行處	行字數	板種
1758년경	大學	校書館	6행17자	木板本
[1726년]	大學章句大全	[咸鏡監營]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1745년]	大學章句大全	寧邊府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1745년]	大學章句大全	慶尙監營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1758년경	大學章句大全	校書館	10행17자	戊申字本
[1760년]	大學章句大全	慶尙監營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1789년]	大學章句大全	成均館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1793년	大學章句大全	校書館	10행18자	丁酉字本
[1798년]	大學章句大全	慶尙監營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17C말-18C초]	大學章句大全	校書館	10행20자	後期芸閣印書體字本
[18C말]	大學章句大全	未詳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정조연간]	大學大文	校書館	10행17자	丁酉字本
1775년	三經四書正文	芸香閣	10행18자	壬辰字本
[18C초]	三經四書正文	校書館	10행20자	後期芸閣印書體字本

(3) 19세기 판본

19세기에 간행된 한문본 大學은 모두 11종으로, 서명별로는 『대학장구대전』 7종, 『대학』, 『대학규벽』, 『용학정문』, 『삼경사서정문』 각 1종 등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세기에 간행된 판본들에는 주로 순조 연간에 간행된 것들이 많으며, 19세기 말인 고종 재위기간에 간행된 판본들도 상당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서명별, 간행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19세기에 간행된 漢文本 大學의 諸版本

刊行年	書名	刊行處	行字數	板種
[19C말]	大學	校書館	9행17자	再鑄整理字本
1810년	大學章句大全	全州河慶龍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1820년	大學章句大全	內閣	10행18자	丁酉字覆刻本
1828년	大學章句大全	慶尙監營	10행18자	丁酉字覆刻本
[1841년]	大學章句大全	慶尙監營	10행22자	明本再覆刻本
[19C중]	大學章句大全	未詳	11행21자	木板本
[1874년]	大學章句大全	武橋	10행22자	木板本
[19C말]	大學章句大全	未詳	10행18자	丁酉字覆刻本
[1868년]	大學奎璧	未詳	10행22자	木板本
[1812년]	庸學正文	未詳	10행20자	木板本
1820년	三經四書正文	內閣	10행18자	壬辰字覆刻本

다. 한일합방 이후

한일합방 이후에 간행된 한문본 大學은 『대학장구대전』 4종이 현존하고 있다. 이 판본들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생겨난 서점들에서 간행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점으로는 한성지역에 회동서국과 신구서림, 전라도 지역에 칠서방, 경상도 지역에 재전당서포 등이 있다. 이들 서점에서는 大學을 간행함에 있어 기존에 있던 목판을 가지고 다시 인출하거나 혹은 새로 판을 새겨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 9〉에서 '後印本'이라고 표시된 판본들이 전자의 경우이며 서점에서 간행된 나머지 것들은 후자의 경우이다. 다음의 〈표 9〉에서는 한일합방 이후에 간행된 大學 판본을 서명별, 간행연도별로 정리하였다.

〈표 9〉 한일합방 이후에 간행된 한문본 大學 판본

刊行年	書名	刊行處	行字數	板種
1913년	大學章句大全	在田堂書鋪	11행18자	木板本
1913년	大學章句大全	新舊書林	13행28자	木板本
1916년	大學章句大全	七書房	10행22자	全州河慶龍 後印本
1918년	大學章句大全	匯東書局	10행18자	內閣 後印本

이상으로 시기별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한문본 大學 판본들은 주로 17, 18, 19세기에 간행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조선왕조의 역사에서 볼 때 선조(宣祖) 말에서 순조(純祖)로 이어지는 시기이며, 이 중 특히 선조, 영조, 정조, 순조 연간에는 많은 판본들이 간행되었고 이는 『論語』 판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¹⁰⁾

10) 안현주, 상계서, pp.68-73.

IV. 漢文本 大學 諸版本의 系統

앞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 한문본 大學 판본은 송나라 주희의 『大學章句』를 저본으로 명나라 영락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대전을 부친 ‘大全本’을 들 수 있다. 이 대전본은 세종조에 명나라로부터 수입한 판본을 저본을 우리나라에서 새로 간행된 판본으로 이후 목판본 20종과 활자본 9종 등 29여종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전본’을 중심으로 목판본과 활자본 구분하여 그 주요한 계통을 형성한 판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木板本 系統

『대학장구대전』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간행된 판본으로서, 크게 명본계통, 활자본계통, 독자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판본들은 다시 영락판 『사서오경대전』을 직접 복각하여 만든 판본들의 계열과 초기형태와는 형태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명본재복각본’들, 영락판 『사서오경대전』을 저본으로 하되 조선에서 만든 활자로 간행한 판본들 및 그것의 복각본 계열, 우리나라에서 새로 판각하여 형태상으로 명본과 완전히 다른 ‘독자판본’들로 세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明本覆刻 系統의 『大學章句大全』 版本

板種	刊行年	刊行處	板式의 特徵			備考
			邊欄	半郭	行字數	
明本覆刻	[1431년]	[鑄字所]	雙邊	25.7×16.8	10행22자	
	[16C초]	未詳	雙邊	23.5×16.3	10행22자	
	[임란후]	未詳	單邊	23.4×18.6	10행22자	
	[1612]	[咸興府]	雙邊	24.2×16.4	10행22자	
明本再覆刻	[1686]	成均館	雙邊	22.6×18.5	10행22자	丙寅4月
	[1745]	慶尙監營	雙邊	22.8×18.3	10행22자	乙丑4月
	[1760]	慶尙監營	雙邊	22×18.3	10행22자	庚辰7月
	[1798]	慶尙監營	雙邊	23×18.8	10행22자	戊午5月
	[18C말]	未詳	雙邊	21×16.9	10행22자	
	1810	全州河慶龍	雙邊	23×18.1	10행22자	庚午仲春
	1916	全州七書房	雙邊	23.2×18.2	10행22자	大正5年
	[1841]	慶尙監營	雙邊	23.1×18.1	10행22자	辛丑5月
	[1726]	[咸鏡監營]	雙邊	27.4×18.4	10행22자	
	[1745]	寧邊府	雙邊	25.7×18.1	10행22자	乙丑4月
	[1789]	成均館	雙邊	24.8×18.6	10행22자	己酉10月
獨自板本	[1874]	[武橋]	單邊	16.5×13.5	10행22자	[甲戌孟秋]
	1913	在田堂書鋪	單邊	20×16.5	11행18자	大正2年
	[19C중]	未詳	單邊	19.7×13.7	11행21자	
	1913	新舊書林	單邊	22.8×17.3	13행28자	大正2年

가. 明本覆刻 系統

명본복각 계열을 이루고 있는 판본들은 초기 명본에 가까운 형태인 명본복각이 4종, 초기 명본과 형태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명본재복각이 11종으로 나누어진다.

명본과 형태가 가까운 판본의 특징은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이나 혹은 직후에 만들어진 판본들이라는 점과 또 판식상으로는 10행 22자이며, 흑구(黑口)인 것이 특징이다.

나. 明本再覆刻 系統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대학장구대전』이 명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후대로 갈수록 복각과 그 복각의 재복각이 거듭되면서 초기 명본의 형태와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진 판본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판본들에 임의로 ‘명본재복각’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임진왜란 이후에 지방의 감영이나 성균관 혹은 민간출판업자에 의해서 간행됐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명본재복각’본들 가운데서도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판본이 가장 많다. ‘을축사월영영중간’(乙丑四月嶺營重刊), ‘경진칠월영영중간’(庚辰七月嶺營重刊), ‘무오오월영영중간’(戊午五月嶺營重刊), ‘신축오월영영중간’(辛丑五月嶺營重刊) 등의 간기가 있는 총 4종의 판본이 경상감영한 곳에서 인출되었으며, 이 외에도 ‘병인사월성균관중간’(丙寅四月成均館重刊), ‘기유시월성균관개간’(己酉十月成均館開刊)의 간기가 있는 성균관본 2종, ‘을축사월영변부개간’(乙丑四月寧邊府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판본 1종, 방각본인 1810년의 ‘하경용장판’(河慶龍藏板)본 1종과 그 후인본인 1916년의 칠서방 판본 1종, 그리고 각각 1726년과 18C말경으로 추정되는 판본 1종 등 총 11종의 ‘명본재복각’본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活字本 系統

조선시대에 주성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 계열의 판본은 모두 9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실제 활자로 인출한 것은 5종이며, 나머지 4종은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한 목판본들로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판본의 특징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활자로 간행되거나 혹은 그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된 『대학장구대전』 판본의 특징은 행자수가 무신자는 10행17자이며, 정유자는 10행18자, 후기운각인서체자는 10행20자, 그리고 혼련도감자는 명본복각계열과 같이 10행22자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 활자본 및 그 복각본들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명나라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대학장구대전』과 동일한데, 이는 조선에서 만든 활자로 찍었을 뿐 원래 모본(母本)으로 하였던 것은 이 영락판 『대학장구

대전』이기 때문이다. 활자는 무신자, 정유자, 후기운각인서체자, 훈련도감자 등 모두 4종의 활자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정유자뿐이다.

〈표 11〉 活字本 系統의 『大學章句大全』 版本

板種	刊行年	刊行處	板式의 特徵			備考
			邊欄	半郭	行字數	
戊申字本	1695년경	校書館	雙邊	24.7×17.3	10행17자	康熙34賜
	1758년경	校書館	單邊	25×17.2	10행17자	
丁酉字本	1793	校書館	單邊	24.8×17	10행18자	癸丑新印
丁酉字 覆刻本	1820	內閣	單邊	24.3×17.2	10행18자	庚辰新刊
	1918	匯東書局	單邊	24.2×17	10행18자	大正7年
	1828	慶尙監營	單邊	23.2×17	10행18자	戊子新刊
	[19C말]	未詳	雙邊	23.4×19.4	10행18자	
後期芸閣 印書體字本	[17C말 -18C초]	校書館	左右 雙邊	20.3×13	10행20자	
訓練都監字本	[17C초]	訓練都監	單邊	26.5×17	10행22자	

정유자는 1793년에 교서관에서 처음 활자로 인쇄된 후 각기 1820년에 내각, 1828년에 경상감영에서 복각되었으며, 1918년에는 경성에 있는 회동서국에서 1820년에 내각에서 『대학장구대전』을 간행할 때 사용했던 판을 이용하여 『대학장구대전』을 다시 찍었고, 19세기 말로 추정되는 간행지 미상의 판본 등 모두 5종의 판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후대에 여러 차례 보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유자로 인출된 판본은 ‘상지십팔년계축신인’(上之十八年癸丑新印)이라는 간기가 있어 이것이 정조 17년(1793)에 간행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이후 정유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4종의 복각본이 인출되었는데, 각기 ‘경진신간내각장판’(庚辰新刊內閣藏板), ‘무자신간영영장판’(戊子新刊嶺營藏板)의 간기가 있는 판본 2종과 경진신간본의 후인본으로 1918년에 경성의 회동서국(匯東書局)에서 찍은 판본 1종, 그리고 19세기 중기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 1종 등이 정유자본 복각 계열을 이루고 있다.

‘경진신간내각장판(庚辰新刊內閣藏板)’의 간기가 있는 판본은 기존에 있는 여러 자료들에서 1820년으로 추정해왔으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론은 없다. 즉, 1820년에 정유자본 『대학』, 『중용』 판본들을 저본으로 복각한 복각본으로 추정하였다. ‘무자신간영영장판(戊子新刊嶺營藏板)’이라는 간기 역시 『대학장구대전』과 『중용장구대전』의 판본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전적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모두 1828년에 경상감영에서 개간한 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¹¹⁾

11) 유탉일, 嶺南地方 出版文化論攷(부산 : 세종출판사, 2001), pp.115-119.

이 판본은 경진신간 내각본과는 8년의 터울을 두고 각기 서울과 경상도에서 간행한 판본이다.¹²⁾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 한문본 大學 판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즉 주희의 『大學章句』를 저본으로 명나라 영락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대학장구대전』이다. 이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종수를 가지고 있는 판본으로서, 크게 명본계통, 활자본계통, 독자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판본들은 다시 영락판 『四書五經大全』을 직접 복각하여 만든 판본들의 계열과 초기형태와는 형태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명본재복각본'들, 영락판 『四書五經大全』을 저본으로 하되 조선에서 만든 활자로 간행한 판본들 및 그것의 복각본 계열, 우리나라에서 새로 판각하여 형태상으로 명본과 완전히 다른 '독자판본'들로 세분할 수 있다. 초기의 '명본복각본'들은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이나 혹은 직후에 만들어진 판본들이라는 점과 또 판식상으로는 10행 22자이며, 흑구(黑口)라는 점이다. '명본재복각본'은 주로 임진왜란 이후에 지방의 감영이나 성균관 혹은 민간출판업자에 의해서 간행됐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판본이 가장 많다. 활자로 간행되거나 혹은 그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된 『대학장구대전』 판본의 특징은 행자수가 무신자는 10행17자이며, 정유자는 10행18자, 후기운각인서체자는 10행20자, 그리고 훈련도감자는 명본복각계열과 같이 10행22자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 활자본 및 그 복각본들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명나라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대학장구대전』과 동일한데, 이 중에서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정유자뿐이다.

V. 結 言

이상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大學의 제판본을 대상으로, 간행시기별 분석과 간행지역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리고 가장 많이 간행된 『大學章句大全』의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그 판본의 형성계통을 밝혀 보았다. 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이 연구되었다.

1) 책판목록의 기록에 의하면 한문본 大學은 총 25개 지역에서 모두 4종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도 많은 지역에서 상당수의 大學책판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판목록상의 기록으로는 전라지역이 가장 많은 곳에서 大學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조사한 결과 실물은 경기지역과 경상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밝

조정화, “嶺南地方 册板目錄에 대한 考察-作成時期 考證을 中心으로,” 도서관, 제51권, 제2호(1996), pp.302-303.

12) 간행연도를 추정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판본들이 많고 지질이나, 글자의 형태 혹은 판식의 형태와 같은 특징들만으로 구분하여 간행연도를 추정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추정한 간행연도를 확정짓기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혀졌으며, 오히려 전라지역에서 간행된 실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 현존하는 漢文本 大學은 서명별로 『大學』, 『大學章句大全』, 『大學奎璧』, 『大學大文』, 『庸學大文』, 『庸學正文』, 『三經四書正文』 등 7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동일 서명 하에서도 판본이 다른 것들을 구분하면 총 38종이 현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한문본 大學 판본의 간행지역을 경기지역, 경상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경기지역과 경상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하게 大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다. 한성지역에서 간행된 大學 판본의 대부분은 출판을 담당하던 중앙 관서에서 인출되었고, 경상지역에서 간행된 大學 판본은 주로 경상감영에서 간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시기별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한문본 大學 판본들은 주로 17, 18, 19세기에 간행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조선왕조의 역사에서 볼 때 선조(宣祖) 말에서 순조(純祖)로 이어지는 시기이며, 이 중 특히 선조, 영조, 정조, 순조 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판본들이 간행되었으며, 이는 『논어』 판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 한문본 大學 판본은 주희의 『大學章句』를 저본으로 명나라 영락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大學章句大全』이다. 이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간행된 바 있는 판본으로서, 크게 明本系統, 活字本系統으로 구분되었다. 초기의 '明本覆刻本'은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이나 혹은 직후에 만들어진 판본들이며, 板式상으로는 10행 22자이며, 흑구(黑口)이다. '明本再覆刻本'은 주로 임진왜란 이후에 지방의 감영이나 성균관 혹은 민간출판업자에 의해서 간행되었는데, 특히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판본이 가장 많다. 활자로 간행되거나 혹은 그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된 『대학장구대전』 판본은 각각 행자수가 다르나, 내용상으로는 모두 명나라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대학장구대전』과 동일한데, 이 중에서 丁酉字本만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 고 문 헌

- 권희승. 湖南坊刻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1.
-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 탐구당, 1974.
- 김치우. “嶺南册板記 所載 刊本の 分類別 傾向.”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 송일기·정왕근. “조선시대에 간행된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 송정숙. 朝鮮朝에 있어서 四書의 수용과 전개—「大學」과 「中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4.

- 심우준. 日本訪書誌. 경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 옥영정. 侍講院 藏書의 變遷과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5.
- 우정임. “朝鮮初期 書籍輸入·刊行과 그 性格-性理學書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제24집(2000).
- 유탉일. 嶺南地方 出版文化論攷. 부산 : 세종출판사, 2001.
- 윤병대. 한국의 책관목록. 서울 : 보경문화사, 1995.
-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9.
- 정왕근.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 정형우.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行 廣布.” 東方學志, 제63집(1989).
- 조정화. “嶺南地方 冊板目錄에 대한 考察-作成時期 考證을 中心으로.” 도서관, 제51권, 제2호 (1996).
- 전혜봉.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범우사, 1990.